

“자신과 조직의 가치를 고도화시켜 세계적인 방재전문기관으로 태어나자”



친애하는 임·직원 여러분!

협회 창립 29주년을 맞이하여 여러분과 함께 기념식을 갖게 된 것을 매우 기쁘고 뜻깊게 생각하며, 지난 29년간 협회의 근간을 이루어 발전의 원동력이 되어 주신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협회는 ‘화재예방’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진력을 해왔으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우리는 IMF 체제 이후 손해보험업계에 몰아친 커다란 파도를 묵도하였습니다. 일부 중소기업 사원사는 사활이 걸린 변신을 시도하여 구조조정에 성공하였으나, 1개사는 힘겨운 생존의 갈림길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급변하는 환경여건 속에서 우리 협회 또한 예외일 수 없는 상황으로서 지난해 ‘생존전략기획단’을 운영하여 협회 발전을 위한 중지를 모아 조직과 업무의 틀을 바꾸었습니다. 이것은 변화 속에서의 능동적인 대응전략인 동시에 스스로의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자구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영혁신입니다.

무수한 땀과 노력으로 다져온 자랑스런 29년의 역사는 격동의 소방역사 속에서 화재예방의 초석을 다지고, ‘방재기술’이라는 모범답안을 제공해 왔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는 지나간 29년을 자랑하지 말고, 미래에 대비하여 자립기반 구축에 필요한 역량을 결집시켜야 합니다. 구태여 NFPA나 UL을 예로 들 필요가 없습니다. 영속적으로 살아있는 생명력을 증거할 확실한 대안이 있어야 합니다.

한국화재보험협회는 안전점검, 시험연구, 방재컨설팅, 방재기술교육, 보험인수 등 모든 분야에서 예측불허의 시장환경을 주도적으로 선도할 수 있는 마케터더로 거듭 태어나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야만 협회의 장래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 보장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은 바로 임·직원 여러분의 몫입니다.

지난 2년간 임·직원 모두의 단합된 힘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었던 협회를 경영혁신을 통해 정상궤도에 올려 놓았습니다. 또한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적 공백을 노사화합을 통한 업무혁신과 인내, 노력으로 극복하여 계획된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이제부터는 지난날 이룩한 실적과 결과에 자만하지 말고 새로운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공익방재업무를 근간으로 세계적인 방재전문기관으로 자립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천적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 자신과 조직의 가치를 고도화시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실천방법에서, 우리가 쌓아 온 기술력을 가지고 고객에게 '상호신뢰'로서 '믿음'을 주고자 할 때 어떤 모습의 믿음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고객에게 확신을 줄 수 있는 믿음의 바로미터는 '실력'입니다. 기술력으로 무장된 '실력'이야말로 장래를 보장받을 수 있는 버팀목입니다. 여러분이 쌓아 올리는 '실력'은 직원 개개인의 '자산'인 동시에 협회의 '미래담보능력'이며, 또한 바깥 세상의 험난한 세파를 헤쳐나갈 '무한한 추진력'인 동시에 미래를 밝혀줄 '햇불'입니다.

그 두 번째 실천방법은 '조직의 힘'을 고도화하는 것입니다.

실력있는 유능한 직원의 뜻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마당, 그 마당이 조직입니다. 직원 한사람 한사람에 대해 깊은 애정을 갖고 전문가로 육성하는 것이 리더의 역할입니다.

또한 조직과 리더에게 기를 불어넣어 활기찬 생명력을 갖게 하는 것은 경영자의 임무입니다.

직원 한사람 한사람의 탄탄한 실력과 건실한 조직, 합리적인 경영마인드를 가진 관리자와 경영자, 그리고 노동조합이 합심하여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때 비로소 거대한 조직으로의 '파워'를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직의 힘'은 구성원 모두가 내일의 비전을 구현하기 위해 정성을 다하고, 갈고 닦을 때 비로소 뭉쳐지는 원동력입니다.

친애하는 임·직원 여러분!

한국화재보험협회의 무한한 성장가능성은 여러분의 실력과 단합된 힘이 필요하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디 협회의 발전을 위해 정진하고, 미래를 준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초여름의 푸르름을 만끽할 수 있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훌륭한 내조와 아낌없는 협력을 하여 주신 임·직원 여러분의 가족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모든 가정마다 사랑과 건강, 평안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 5월 15일

이 사장 오 상 현